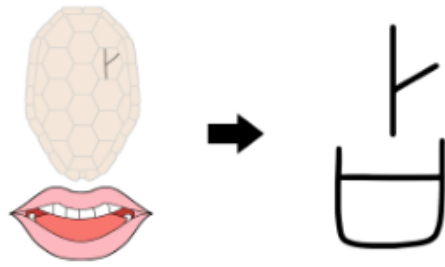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占

점령할
점:/점칠
점

占자는 '점치다'나 '차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占자는 卜(점 복)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占자는 '점괘'라는 뜻을 가진 卜자가 확장된 개념이다. 卜자가 단순히 '점괘'를 뜻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口자가 더해진 占자는 주문을 외우거나 점괘를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占자는 점치는 주문을 외운다는 의미에서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占자는 때로는 '차지하다'나 '점령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글자의 형태가 마치 어느 한 지점에 깃발을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占

갑골문

占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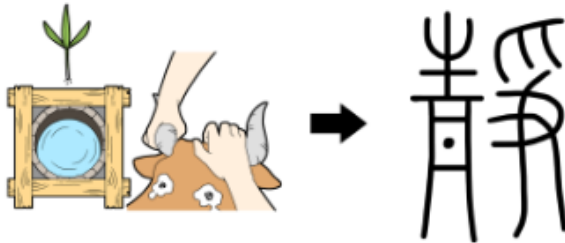
占

소전

占

해서

회의문자①



靜

고요할
정

靜자는 '고요하다'나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靜자는 靑(푸를 청)자와 爭(다툼 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爭자는 소뿔을 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투다'라는 뜻이 있다. 靑자는 우물과 초목을 그린 것으로 '푸르다'나 '고요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靜자는 상반된 뜻을 가진 글자가 결합한 셈이다. 사실 靜자는 '고요하다'를 표현하기 위해 왁자지껄했던 싸움이 끝난 이후의 소강상태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다투는(爭) 모습에 푸르름(靑)을 더해 매우 고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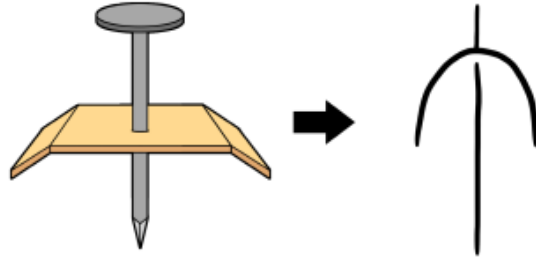
靜

소전

靜

해서

상형문자①



丁

고무래/
장정 정

丁자는 '장정'이나 '일꾼', '못'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丁자는 못을 닮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丁자의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였다. 갑골문에서는 네모난 □ 모양이었고 금문에서는 둥그런 ● 모양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못의 머리를 그린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못의 측면을 ↑ 그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못질한다는 건 노동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의 丁자는 노동의 주체인 '장정'을 뜻하게 되었다. 참고로 후에 여기에 金(쇠 금)자가 더해진 釘(못 정)자가 '못'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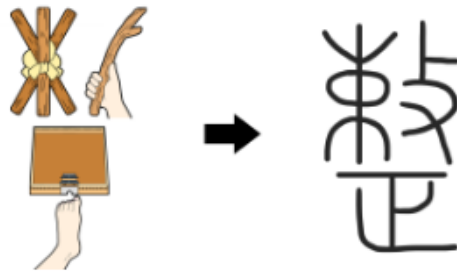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整

가지런할
정:

整자는 '가지런하다'나 '정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整자는 束(목을 속)자와 攵(칠 북)자, 正(바를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攵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하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整자에 쓰인 束자는 나무를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묶다'나 '동여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 글자의 구성을 놓고 풀이해보면 整자는 '바르게(正) 묶도록(束) 하다(攵)'이다. 즉 整자는 흐트러진 것을 바르게 정리한다는 뜻이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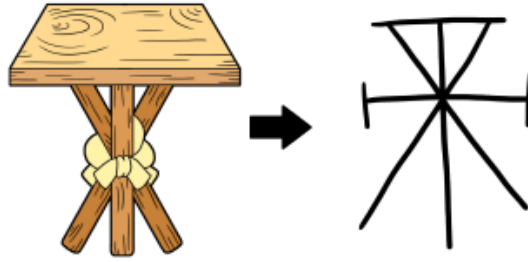
소전



해서

4
-
175

상형문자 ①



帝

임금 제:

帝자는 '임금'이나 '천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帝자는 巾(수건 건)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帝자의 갑골문을 보면 나무를 엮어 만든 선반이 采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선반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帝자의 본래 의미는 '제사'였다. 帝자는 정월에 천자가 하늘에 드리던 제사를 뜻했었지만, 후에 천자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천자'나 '임금'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후에 示(보일 시)자가 더해진 禘(제사 체)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采

갑골문

采

금문

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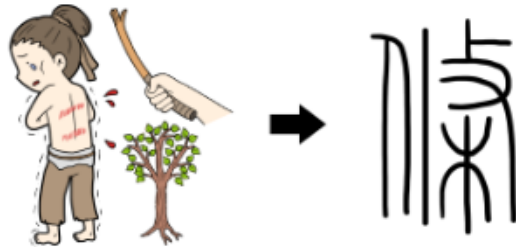
소전

帝

해서

4
-
176

회의문자 ①



條

가지 조

條자는 '나뭇가지'나 '맥락', '조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條자는 木(나무 목)자와 攴(바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攴자는 회초리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회초리질 하는 모습을 그린 攴자에 木자를 결합한 條자는 회초리의 재질인 '나뭇가지'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이처럼 條자는 나무의 겹가지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파생된 것처럼 조항도 법을 중심으로 파생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항목'나 '조항'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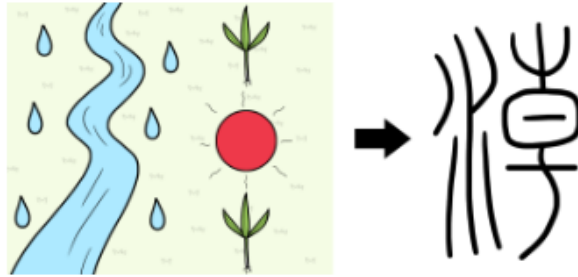
條

소전

條

해서

회의문자①



潮

밀물/조수 조

潮자는 '밀물'이나 '조수'를 뜻하는 글자이다. 潮자는 水(물 수)자와 朝(아침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朝자는 풀썩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침'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모습을 그린 朝자에 水자가 더해진 潮자는 아침이 시작되듯이 물결이 밀려온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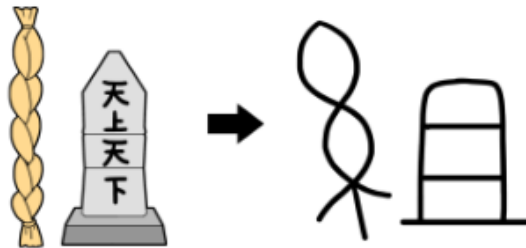
潮

소전

潮

해서

형성문자①



組

잘 조

組자는 '(베를)짜다'나 '조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組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且(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且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且자를 '도마'라고 할 때는 '조'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組자는 본래 베를 짠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래서 組자는 실을 엮갈려 천을 '짜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조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작은 실을 짜서 큰 천을 만들 듯이 사람들이 모여 큰 조직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이다.

組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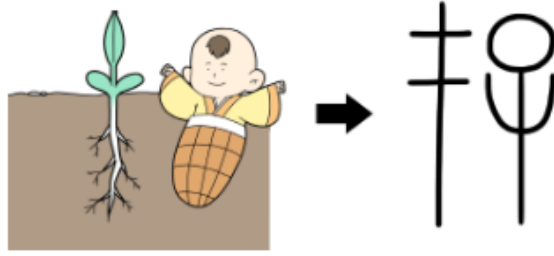
組

소전

組

해서

회의문자①



存

있을 존

存자는 '있다'나 '존재하다',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存자는 才(재주 재)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才자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초목을 그린 것이다. 存자는 이렇게 어린 초목을 뜻하는 才자와 子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는 어린아이의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여기서 안부라고 하는 것은 생존 여부를 묻는다는 뜻이다. 조그만 병치레에도 쉽게 목숨을 잃었던 예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在자는 이렇게 '안부를 묻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있다'나 '존재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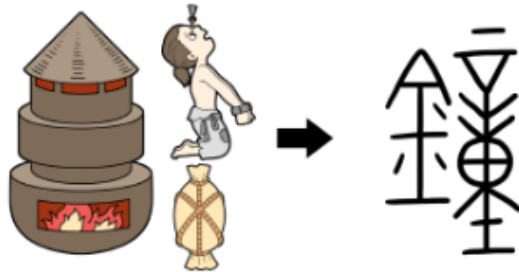
存

소전

存

해서

회의문자①



鍾

쇠북 종

鐘자는 '쇠북'이나 '종', '시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鐘자는 金(쇠 금)자와 童(아이 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童자는 '동→종'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鐘자는 쇠로 만든 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렇다면 종은 언제 쓰였을까요? 종은 악기로도 쓰였지만, 옛날에는 종을 울려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했다. 시간에 맞춰 종소리를 울려 현재 시각을 알려줬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은 시간을 물어볼 때 '現在几點鐘?(xiànzài jǐ diǎn zhōng)'이라고 물어보는데, 직역하자면 "지금 종을 몇 번 쳤습니까?"이다.

鐘

금문

鐘

소전

鐘

해서